우림교회 (기독교의 기본진리)
2016 12 15

제목만 보아도 지루하고 고답할것같은 이 책은 목사님의 권유가 없었더라면 내 손으로 사서 읽을 것 같진 않았다. 그러나 챕터가 더 해갈수록 내 머리 속에 중구남방으로 자리 잡고 있던 얇팍한 지식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는 이상야릇한 느낌에 빠져들었다. 이 책은 우리가 알아야하고, 또 알고 행해야하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. 책이 끝나갈 무렵 나의 믿음이 더욱 두터워짐을 깨달았고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은 친구가 떠올랐다. 그 친구와 꼭 같이 읽고 싶은 마음에 한권을 더 구입했다. John W. Stott 목사님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쓰여진 이 책으로 인하여 나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지 상상해본다.

최미금 집사